



MG 양성률 25% 여전히 높다

– ND 동남아, 중국 등 국내 주변국 발병률 높아 –



농 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학 합동 연구모임인 ‘한국가금질병연구회(회장 권용국)’는 지난 4월 24일(수) 대전 유성구 라온 컨벤션에서 ‘한국가금수의사회(회장 윤종웅)’와 공동으로 해외 조류 질병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금수의사, 학계, 시·도 방역 기관, 생산자 단체, 가금 사육농가 등 총 130여명이 참여하여 가금질병 예방관리 정보 등을 공유하였다.

가금질병연구회 권용국 회장은 MG의 경우 금년부터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의해 백신 금지 정책을 앞에 두고 있으나 현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MG 백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제를 마련했으며, ND의 경우 국내에서의 발생은 없으나 현재 동남아,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세미



나를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의 오마르(Omar) 교수의 뉴캐슬병 해외 발생 동향 및 새로운 백신 개발 현황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시바프라사드(Shivaprasad) 교수의 닭 면역억제 질병의 미국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 생백신 개발자인 모로우(Morrow) 박사의 백신의 특성 및 적용에 대한 세부 정보와 미국의 닭마이코플라스마병 OIE 전문가인 퍼거슨-노엘(Ferguson-Noel) 박사의 미국 마이코플라스마병 방제 및 예방관리에 관한 경험을 공유·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외 전문가와의 정보 공유를 토대로 가금 질병 근절을 위한 예방·관리 방안 추진 및 국내 방역관리 방법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MG의 경우 일제조사 결과 양성률이 25%를 보임에 따라 감염률이 과거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종류의 백신접종군에서 야외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MG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 측에서는 현장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백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질병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학 합동으로 참여하여 질병 발생 동향 및 예방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가금 질병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금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계**